

# 전주형 거리예술축제 '전주예술난장'

7~9일 전주한옥마을·전라감영·풍남문 일원서 국내·외 54팀 아티스트 참여 다채롭게 진행

전주시가 주최하고 전주문화재단(대표이사 백옥선)이 주관하는 동아시아 문화도시 전주 기획사업 '2023 전주예술난장'이 오는 7~9일 3일 간 전주한옥마을, 전라감영, 풍남문 일원에서 펼쳐진다.

이에 따르면 '전주예술난장'은 국내·외 총 54팀의 아티스트들이 출연해 8개 구역에서 마술, 마임, 서커스, 인형극, 음악, 댄스, 공중 퍼포먼스, 대형 퍼펫 카니발 등 거리예술축제 형태로 진행된다.

이번 행사는 기획부터 실행까지 지역 문화예술인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이뤄졌다.

특히 주제공연은 7일과 8일 양일에 걸쳐 제1구역인 전라감영 서편부지 메인 무대에서 운영되며, 한·중·일 동아시아 문화도시 예술가의 협연과 퍼포먼스를 한 곳에서 볼 수 있다.

이는 대형 퍼펫 카니발을 시작으로 공중 퍼포먼스, 시민 참여형 체험 공연, 그리고 야간까지 이어지는 지역 뮤지션들의 난장 콘서트까지 남녀노소 모두가 즐기고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흥(興)과 혼(魂)의 난장, 흥열! 흥열!'은 한중일 동아시아 3개국의 전통과 현대를 넘나들며 각국의 문화사찰단이 문화의 다양성과 동질성을 알리고, 동아시아의 평화를 기원하는 꽃을 피워낸다는 스토리로 구성됐다.

한중일 거리예술 페스티벌은 7~9일까지 3일간 풍남문 광장과 경기전 광장, 태조로를 아우르는 2구역부터 8구역까지 총 7개 스페이스에서 벌어질 예정이다.



전주예술난장 메인포스터

마임, 마술, 인형극, 행위 예술, 서커스 등 다양한 분야의 거리공연으로 기획됐으며, 관객 체험형 축제로 많은 문화예술을 함양할 수 있다는 점이 핵심이다.

상상과 영감의 공간 '퍼펫 카니발'은 인형이 주는 정서적 발달과 창의력을 기반으로 어른들 뿐만 아니라 어린이들도 충분히 축제를 즐길 수 있도록 여유로운 환경을 제공, 잊지 못할 추억을 선물하고자 했다.

또한 축제가 벌어지는 거리에 대형 왕 인형

과 퍼포먼스, 그리고 브라스 밴드로 구성된 퍼레이드로 전포에 살아 숨 쉬는 도시 전주의 정통성을 널리 알리는 데 기여할 방침이다.

축제의 마지막 날인 9일은 한벽문화관 공연장에서 '동아시아 문화도시 한·중·일 거리예술의 좌표설정'이라는 주제로 거리예술 포럼을 열어, 전주예술난장 행사에 깊이를 더할 예정이다.

이 포럼에는 임경택 전북대 고고문화인류학과 교수의 기초발제를 시작으로, 국내 거리예술 전문가인 최준호 한예중 연극학과 교수, 윤종연 안산거리축제 총감독, 이재원 중경문화축전 총감독, 김중식 용인대 연극학과 교수 등을 초청해 거리예술 축제의 가치 확산과 개념 정립 및 방향을 설정하고, 전주형 축제 모델 개발을 모색하는데 목표를 뒀다.

전주예술난장의 총괄 프로듀서인 (재)전주문화재단 서용선 사무국장은 "이번 전주예술난장을 통해 전주형 축제 개발과 거리예술축제의 가능성을 발견하고, 국내외 기획자와 예술가들의 적극적인 교류의 장을 통해 전주의 예술가들이 국내는 물론 해외에도 진출하는 아트마켓으로의 기능을 하고자 했다"며 "시민과 관광객들에게는 새로운 예술을 경험하는 '난장'을 펼치고자 한다"고 밝혔다.

주요 프로그램과 세부 일정은 재단 홈페이지, 블로그 및 전주예술난장 SNS(@2023jartnanjang)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문의는 재단 전주예술난장 사무국(063-212-8800)으로 하면 된다. /장은성 기자

# 문화공간이룸 '부캐의 시대' 공연

6일 다양한 예술 형태 진행... "전주 문화·예술 높이는 열쇠 될 것"

문화공간이룸(이사장 이윤정)의 자체 기획으로 열리는 '부캐의 시대' 공연이 오는 6일 오후 7시 30분, 문화공간이룸에서 화려한 막을 올린다.

이번 행사는 (재)전라북도문화관광재단의 2023년 민간문화시설 기획프로그램 지원사업으로 선정된 프로그램으로 전문 예술가가 아닌 일반인에게 자신의 취미나 열정을 기반으로 함께 무대에 서며, 삶의 다양한 측면을 표현하는 기회를 제공하는 프로그램으로 제작됐다.

문화공간이룸에서는 개관 이래 전문 음악 콘서트 뿐 아니라 일반인과 전문 예술인이 함께 꾸미는 오페라 '사랑의 묘약', 일반인들이 무대에서의 꿈을 이루는 '우리의 버킷 리스트', 가족들이 만들어가는 '패밀리라 콘서트' 등 지역민들이 직접 주인공이 되어 참여, 체험하는 프로그램을 꾸준히 기획해왔다.

이번 '부캐의 시대'는 모집공고를 통해 선정된 일반인들이 무대에서 자신의 예술적 열정을 표출하는 프로그램으로서, 성악, 플루트, 샹송, 자작곡, 댄스 등 다양한 예술의 형태로 다채로운 공연을 선보일 예정이다.

이번 공연을 기획한 문화공간이룸에서는 예술가와 시민이 함께 창조하고 공유하는 플랫폼을 제공하며, 지역 사회와 긴밀한 협력을 통해 다양한 예술 경험을 즐길 수 있도록 하며, '부캐의 시대'를 통해 일상 속에서 문화와 예술의 즐거움을 더욱 누릴 수 있도록 하고 지역 주민들이 공유할 수 있는 특별한 공간을 조성하고자 기획했다.

이에 문화공간이룸 이윤정 이사장은 "부캐의 시대 공연은 전주의 지역 문화와 예술 활동을 촉진하고 다양한 예술 경험을 지역주민과 함께 나누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다. 이를 통해 우리는 지역 예술을 키우



고 발전시키며, 지역 주민들이 문화와 예술을 더욱 풍요롭게 누릴 수 있는 문화 거점으로 전복을 만들어나가고, '부캐의 시대'는 이러한 비전을 실현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며, 전북의 문화적 풍요로움을 높이는 열쇠가 될 것이라 생각한다"고 전했다.

또한, 이 이사장은 "이번 공연은 우리 지역의 예술과 문화를 새로운 높이로 이끌어 내고, 전북도민들과 함께 문화와 예술을 즐길 수 있는 특별한 기회를 제공하고 예술과 문화의 경계를 넘어, 지역의 창조성과 다양성을 빛내며, 전북을 문화와 예술의 화려한 메카로 향상시키는데 기여할 것으로 믿는다"며 "이번 공연은 우리가 예술과 문화를 통해 새로운 가능성을 창조하고, 지역 사회와 함께 성장해 나가는 모범 사례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번 공연은 전석 무료이며 누구나 참석하여 관람 할 수 있다. /김재훈 기자

# '대한민국 국악대제향' 9일 남원 국악의 성지서 개최

남원시에서 주최하고 사)민속국악진흥회(이사장 김익규)가 주관하는 제17회 대한민국 국악대제향이 오는 9일 11시, 남원시 운봉읍 국악의 성지에서 개최된다.

국악의 성지는 민족의 영산 지리산 자락인 운봉읍에 우리 민족의 전통과 흥이 담긴 성지임을 널리 알리고 국악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열의를 모아 조성되었으며 현재 56분의 위패를 모시고 있다.

매년 국악의 성지 약성사에서 개최하는 국악대제향은 남원시립국악단의 주도하에 정화무와 제관들의 헌례, 그리고 명창·명인들의 헌가, 헌무 및 국악인들의 묘역참배 순으로 진행된다.

헌가, 헌무로는 판소리계의 명창인 박양덕, 김수연, 김화자, 이나초 등 8명의 성주풀이, 남원산성, 진도아리랑 공연과 임현빈 등 8명의 육자배기, 흥타령 그리고 김무길(거문고) 최우철(장고) 등 5명의 기악합주 공연이 이어진다.

한편 김익규 이사장은 "남원은 동편제 소리



제16회 대한민국 국악대제향 모습

의 발상지이자 춘향가 흥부가의 배경지로서 국악의 역사가 보존 전승되어 온 국악 본고장의 정체성을 확고히 하고 있으며, 전통문화의 세계화를 도모하기 위해 조성된 설립 취지에 따라 많은 국악인과 관계자들이 참여해 추모하고 국악인들의 유대를 강화하는 자리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남원=김기무 기자

# 전주문화재단, '오늘동문' 행사 개최

전주문화재단(대표이사 백옥선)은 2023 생활문화거점지원사업 '오늘동문' 행사를 개최한다고 4일 밝혔다.

이는 지난 6월 개소한 동문창작소 헌관 제막식, 입주 작가 작품 전시회, 작업실 개방 등의 행사가 계획돼 있다.

이에 따르면 전주 동문거리 삼양다방 3~4층에 위치한 동문창작소는 작업실 9실, 공용(휴게)공간 1실, 간이수장고 1실 등으로 구성됐다. 지난 6월 공모를 통해 선정된 시각예술분야 작가 9명이 입주해 창작활동을 펼치고 있다. 입주한 작가는 구경아(아크릴), 김효정(서화), 박성수(수묵화), 엄수현(유화), 이기립(오일파스텔), 이미영A(유화), 이미영B(수채화), 이수정(회화, 공예), 임희성(아크릴) 등이다.

이번 행사는 헌관 제막식을 시작으로 동문창작소의 작가 작업실 공개와 동문예술거리의 활성화를 목적으로 입주 작가 작품 전시회(공유화실)가 열린다. 특히 모든 행사에 참여하는 시민을 위해 소정의 기념품도 마련됐다.

/장은성 기자

# 최명희문학관, 초등학교 손글씨 공모전 수상작 발표

제17회 대한민국 초등학교 손글씨 공모전 수상자가 발표됐다.

전북 8개교, 전북 외 130개교 등 전국 217개 학교에서 1,521명의 학생이 작품을 응모했다.

4일 최명희문학관에 따르면 심사 결과 성예린 학생(인천논곡초 4년)이 대상, 고은유(제주 아라초 2년)·김소연(군산 소룡초 4년) 학생이 최우수상, 김나연(인천해일초 5년)·김단아(서울 송의초 2년)·류하준(서울경인초 4년)·박미소(대구 계성초 5년)·박하준(부산 센텀초 1년)·송민찬(전주금암초 5년)·육하영(전주양현초 4년)·윤시현(포항제철초 4년)·윤치훈(부산 성진초 5년)·장이안(부산 낙동초 2년)

학생이 우수상을 받는 등 모두 113명의 학생이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올해는 기후위기·재활용·분리수거 등 환경 문제를 다루거나 안중근·유관순·정인승·홍범도 등 일제강점기 위인에 대한 존경과 감사를 표한 글이 많이 있었다. 참가 지역은 전라북도 참가자가 40%로 가장 많았고, 경기 16%, 서울 12%, 인천 11%, 경남 5% 순이었다.

심사는 김근혜(동화작가), 고희숙(화가), 이용수(전북일보 디지털콘텐츠본부장), 윤미숙(동화작가), 정서연(재미보따리 대표), 최기우(극작가) 등이 맡았다.

/장은성 기자

전북의 역사·문화 유산

## 춘향전의 무대

### 남원 광한루

전주매일 캠페인

광한루는 조선시대 이름난 형회정승이 남원에 유배되었을 때 지은 것으로 처음엔 광동루(廣東樓)라 불렀다고 한다. 광한루(廣寒樓)라는 이름은 세종 16년(1434) 정인지가 고쳐 세운 뒤 바꾼 이름이다. 지금 있는 건물은 정유재란 때 불에 탄 것을 연조 16년(1633) 다시 지은 것으로 부속건물은 정조 때 세운 것이다.

규모는 앞면 5칸·옆면 4칸이며 지붕은 옆면에서 볼 때 여덟 팔(八)자 모양을 한 팔각지붕이다. 누마루 주변에는 난간을 둘렀고 기둥 사이에는 4면 모두 문을 달아 놓았는데, 이름에는 사방이 트이게끔 안쪽으로 걸 수 있도록 해 놓았다. 또한 누의 동쪽에 있는 앞면 2칸·옆면 1칸의 부속건물은 주위로 뒷마루와 난간을 둘렀고 안쪽은 온돌방으로 만들어 놓았다. 뒷면 가운데 칸에 있는 계단은 조선 후기에 만든 것이다.

춘향전의 무대로도 널리 알려진 곳으로 넓은 인공 정원이 주변 경치를 한층 돋우고 있어 한국 누정의 대표가 되는 문화재 중 하나로 손꼽히고 있다. (출: 문화재청 제공)